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행사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이미영 / 발행일 2022년 11월 11일 / 54984 / 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010-2050-0650 (fax227-0650)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2022년
11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을 이루자.



이사장 정 우 식

참담해서 선뜻 입조차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 인사도 쉬이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역교육을 탄탄히 할 근거도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고 활동가들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느껴져 발걸음에 희망의 기운이 실리던 차에 접한 참사 소식은 우리를 다시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떨치고 일어서서 일상성을 회복해야겠지요.

엊그제 입동을 지났으니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들머리에서 나무의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생각합니다. 가을 단풍을 보며 저리 아름다운 빛깔들이 한꺼번에 어디서 쏟아져 나올까 궁금해하지만, 실은 나무가 본디 가지고 있던 제 빛깔들을 이제야 비로소 뽐어내는 것이라 합니다. 생존을 위해 고운 저마다의 빛깔 다 감춘 채 광합성에 유리한 엽록소만 겉으로 올려 초록 초록하던 나무를 생각하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빛깔은 무엇일까요? K-팝, K-문화, 한류로 자부심 높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던 우리 모습은 몇 달 만에 지워져 가고, 획일과 억압과 거짓이 판치는 야만의 시대를 다시 마주합니다. 국민이 축제를 만끽하는 것도, 길을 지나는 것도 전부 비난받을 일이 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짐승의 언어가 난무하는 마귀의 나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깔은 아닐 것입니다. 저급한 산업세력 찌꺼기들이야 어차피 머지않아 청산되고 말 테지만 잠시나마 우리의 빛깔이 흔탁해질까 두렵습니다. 정말 ‘자유! 자유! 자유!’부터 외치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알록달록 평화로운 식물의 얼굴을 한 우리의 맑은 참 빛깔을 되찾아야겠습니다.

국가가 무너졌으니,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해주지 않으니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쉽게들 말합니다. 각자도생은 짐승의 나라를 욕망하는 이들이 바라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힘은 연대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더불어 숲’을 제안합니다. 이 겨울을 단단히 견디려면 더불어 숲을 이루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느라 저의 일부인 잎조차 떨구어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 나무에게서 배웁니다.

왜 아직 세월호인가를 생각해 하는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 전시회와 교육정책 세미나 등 여러 사업에 함께 애쓰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글 심는 순서

- 표지 -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 02 인사말-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을 이루자.
- 03 소식, 하나 - 제10차 교육정책세미나
- 04 소식, 둘 -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전주 전시회
- 06 소식, 셋 - 제58차 이사회 개최
- 소식, 넷 - ‘고전의 향기’ 동아리 매주 ‘맹자’ 강독회

- 소식, 다섯 - 『목공체험교실』- 캠프 도마 만들기 -최
- 07 교육정책 세미나 기초 발제문 / 발표문 요약
- 10 [책 이야기 2권] 미래교육의 대안, 지역성을 교육의 중심으로 두는 마을교육공동체
- 11 [연대사업 / 회원 동정]
- 12 [고전의 향기] ‘원주학기(袁州學記)’로 읽는 지역교육생태계 복원 행사안내 / 신입회원 모집

제10차 교육정책세미나,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주관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북교육협력방안과 발전과제』 주제로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을 꿈꾸며 지역교육정책과 전북교육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온 우리 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북교육협력방안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지난 10월 25일(화) 오후 3시,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0차 교육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지역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도청-도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교육협력추진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 광주 등지에서 활동가들도 달려와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정우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북의 살길은 교육과 소통과 협력에 있다. 도청-교육청-학교-지방의회-시청·군청-마을-대학-기업-민간단체까지 지역이 가진 모든 자산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농생명산업과 교육을 연계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 전북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북이 낙후의 근거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여야 한다. 함께 지역교육의 발을 일구자. 학교를 마을로 지역사회로 넓혀 가보자.”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연구소 이미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주제발제자인 양병찬 교수(공주대)는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을 발제하였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이정영 회장(전북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이 ‘전북마을교육공동체 현황과 발전방안’, 박정희 의원(전라북도의회)이 ‘교육거버넌스와 교육자치’,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이 ‘지역사회 기반 대학의 교육협력방안’, 황영모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이 ‘지역소멸 위기, 농촌학교살리기 대응 전략과제’를 발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발제를 들으면서 “전북교육의 희망을 보았고, 지자체, 교육청이 시민사회단체, 주민과 함께 만나고, 협의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세미나를 각 시·군에서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발제문/발표문 요약 7~9쪽)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전주 전시회



우리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전주 전시회를 마쳤다. 전시회는 9월 24일(토)부터 10월 1일(토)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3층)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관련 단체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하여 출간한 구술 증언록 《4.16 그날을 말하다》 100권의 책을 읽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55명의 손글씨 작가들이 ‘신영복 민체’ 붓글씨 작품을 써서 전국 순회 전시를 기획하였고 경기도 안산을 시작으로 전시하였다. 전국 순회 전시는 ‘4.16기억저장소’ 주최, 세종손글씨연구소 주관, 4.16연대, 사)더불어숲, 잼에스디, 도서출판 걷는사람 후원으로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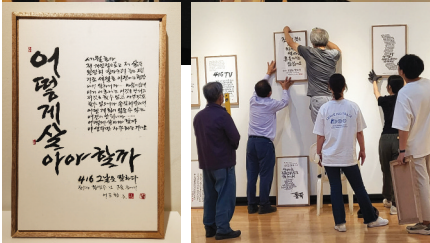
[전주] 전시회는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과 사)전북민예총이 공동주최하고,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주관하였다.

9월 2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한 개막식에는 3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분이 오셔서 근래 보기 드문 성황을 이루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격려했고, 손글씨 참여 작가 10여 명 등이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하여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작가들과 ‘더불어숲’ 등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전시 개최의 취지와 의미를 짚어주었고, 정우식 이사장은, 아픔을 문화적으로도 기록·기억하며 함께하자는 뜻을 담은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서 세종손글씨연구소 작가들의 붓글씨 현장 시연 퍼포먼스와 관람객들에게 작가들이 엽서에 직접 정성스레 손글씨를 써 주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전시 기간 내내 평일에도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온 센터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과 관장님, 유치원 아이들과 선생님들, 대안위탁학교 학생들, 김성주 국회의원, 때론 선생님들끼리,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이 함께 오기도 하였다.

전국 순회 전시여서 전시 기획과 준비, 작품 설치부터 철거 후 다음 전시 지역인 인천으로 발송까지 적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여 여럿이서 발 벗고 나서서 애써주셨다. 특히 8일간 전시장 지킴이 봉사에 당번을 맡아 헌신해 주신 분들의 노고가 컸다. 이번 행사를 준비과정부터 곁에서 지켜본 분들은 문화원의 저력을 충분히 느낀 행사였다, 애썼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번에 애쓴 진행 팀 모두는 오히려 이번 전시를 통해 내 안에 응어리져 있던 많은 부분이 치유된 느낌이라고 응답했다. 좋은 전시였음이 분명하다. 문화의 힘이다.



제58차 이사회 개최

제58차 이사회가 8월 31일, 오후 6시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정우식 이사장의 의사 진행으로, 상정된 안전인 활동 보고의 건과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을 처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특히 하반기 주요 사업인 세월호 8주기 손글씨 전시회, 교육정책 세미나 등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자고 결의하였다.



‘고전의 향기’ 동아리 매주 ‘맹자’ 강독회

우리 문화원의 고전학습 동아리인 ‘고전의 향기’는 무더운 여름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나서 지난 8월 25일(목) 개강식을 가진 뒤, 본원 교육실에서 매주 목요일 ‘맹자 강독회’를 열고 있다.

문채병 선생님(본원 이사)의 열정적이고 명쾌한 강의로 진행되는 강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 효과는 물론 회원들의 소통과 상호 교류가 활발해 교육실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있다. 겨울방학엔 관심 있는 회원을 위한 특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목공체험교실』 - 캠포 도마 만들기



지난 8월 2일(화)에는 오전 10시부터 전주공고에 있는 전북교육청 목공체험센터에서 우리 회원 대상 프로그램인 ‘목공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캠포 나무(호주산) 도마[크기 약 450×250×2.5cm] 만들기 체험을 했다. 재료비는 참가자들이 부담하였다.

화초장 무형문화재이신 천철석 소목장님의 지도와 안내로 진행하였다. 예전에 찻상 만들기 때도 그랬지만 목공체험은 언제나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모두 즐거워하며 흡족하게 체험을 마쳤다.

체험 후에는 이 사업을 기획하신 남상팔 원장님께서 참가자들에게 점심까지 대접하셨다. 만족도는 더 높아졌으리라.

양병찬 교수 기초 발제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

— ‘지역소멸’에의 지역의 교육적 응전 —

주제 발제를 맡은 양병찬 교수(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역 고유의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소멸의 관점을 다시 소생, 재생, 회복의 관점으로 전환, 교육을 통한 지역 재생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협력 전략인 학교와 대학, 지역이 변혁적, 협력적 교육공동체로서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 프로젝트 추진, ②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교육 강화, ③ 지역공동체 사업들의 연계화로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휴, 지역 교육복지 사업 통합을 제시하였다.



양병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협력 전략은 학교, 대학, 지역이 변혁적, 협력적 교육공동체가 돼야

이와 함께 지역교육생태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한 ‘교육 자치도시로서의 협력 거버넌스’의 경기도 시흥시, ‘교육민회를 통한 주민의 교육협력 거버넌스’의 전남 순천시, ‘가기 싫은 학교, 살기 싫은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구로’를 실현한 서울시 구로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의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공동체 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①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② 지역과 학교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 통합운영, ③ 지역 격차 극복을 위한 농촌교육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생태계의 창조를 제안하며 “21세기 초연결 시대에 다양한 교육적 경험의 가능성이 더욱 풍부해지는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협동적 구조로 전환, 지역교육력을 극대화하자고 말을 맺었다.

이정영 회장 발표

전북마을교육공동체 현황과 발전방안

이정영 회장(전북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은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학부모, 지역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삶과 연계되도록 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의미’하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지역의 교육 서비스를 단순히 소비하기보다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 교육단체와 함께 논의해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지원 중요

또한 “학교가 마을을 살릴 수는 없지만, 학교 없는 마을(면)은 마을(면)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지자체가 학교의 소멸을 방지한다면 마을의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면서 학교, 학부모, 지역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영 (전북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박정희 도의원 발표

교육 거버넌스와 교육자치

—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

박정희 의원(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라북도 교육 거버넌스 발전과제’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사회 구축,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 지역사회 조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협치를 위한 지역 교육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정희 (전북도의회 의원)

관 주도 교육 거버넌스에서

민·관·학 협업 자치형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박 의원은 새로운 지역사회 거버넌스 추진 방향은 ①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 간 협업으로 지역사회 수요에 적합한 교육자원 활용과 효율적 교육사업 운영, ② 교육사업의 장기적 운영과 내실화, 유연화, 융합화로 교육사업 실효성 강화, ③ 교육 협업 추진과정에 학교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역량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의 문제점인 관 주도 종속적 교육 거버넌스에서 민·관·학 협업 자치형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용채 교수 발표

지역사회 기반 대학의 교육협력 방안

정용채 교수(전북대 기획처장)는

‘지역사회 기반 대학의 교육협력방안’ 발표에서 농생명, 연기금, 공간, 전기안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 23개 기관과 제주 2개 기관 구성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지역특화산업인력과 융합인재를 육성한다고 소개하였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교육청-대학 원스톱 소통창구 필요

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사례로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교육,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박물관, 청소년 대상 교육 기부 사업 등을 설명하고 대학의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당면한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 ① 진로-학업 설계 역량 강화 지원, ②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③ 맞춤형 진로-학습관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교육청-대학의 원스톱 소통창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

황영모 연구위원 발표

지역소멸 위기, 농촌학교 살리기 대응 전략과제

황영모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은

농촌 마을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지방소멸지수'(50세 이상 인구에서 20~39세 가임여성의 비율로 산정, 합계출산율 개념은 미고려됨)와 '차세대재생력지수'(25~39세 인구에서 0~4세 인구 비율, 현시점에서 최근 5년 결혼 가구의 출산 표현)를 비교 설명하였다. 재생 가능성이 높은 곳인 차세대재생력지수 상위 15개 지역에 전북의 순창군과 진안군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농촌 재생에서 중요한 과제는 농촌학교라고 주장하였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농촌 재생 관점에서 농촌학교의 의미 매우 중요

황 연구위원은 경남 함양 서하초 사례로 지역주민들의 '지역 활성화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협의회' 개최, 전입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거와 일자리 제공,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육 혜택 제공 등으로 인구를 유입(20년, 54명)한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주민과 학교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라도 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속 살아가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은 농촌학교라고 하였다. 그러나 농촌학교는 정주 조건의 필요조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교육자원을 얻는 것,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담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래교육의 대안, 지역성을 교육의 중심으로 두는 마을교육공동체

이 미 영(편집인)

《마을교육공동체》

- 생태적 의미와 실천 - (김용련 지음. 살림터)

마을교육 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김용련 지음



미래의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배움은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지식을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지식을 통해 배움은...

“마을이 하나의 학습 생태계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 배움이 학교라는 틀에서 정체되거나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시대적 흐름이자 교육운동, 사회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 농촌 작은학교살리기운동에서 시작되어 혁신 학교운동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주민이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실천을 고민하면서 마을과 학교, 주민이 교육주체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화, 연대, 공유와 상생이라는 관점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변화의 화두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다”며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

하는 미래교육의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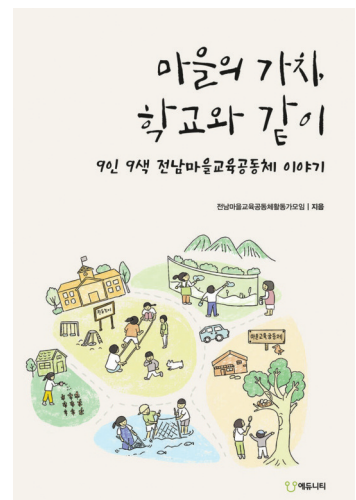
이 책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실천사례보다 학술적 성격과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교육현장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마을의 가치 학교와 같이》

- 9인 9색 전남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 -
(전남마을교육공동체활동가모임 지음. 에듀니티)

아이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
아이들의 배움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유익미한 학습 경험은 반드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미래사회에 적합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전남의 마을교육공동체 안에서 9명의 활동가들이 실천한 삶을 기록한 책이다.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과정 이야기’ ‘마을교육공동체 어렵지 않아요.’ 등의 목차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지역과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교육의 변화, 마을교육과정을 고민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 주민 모두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산촌유학 전문가 세미나

지난 8월 4일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산촌유학 전문가 세미나>에는 도청 관계자, 지역활동가, 본원 회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미나는 본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이미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원 소장(농촌유토피아연구소)이 '농촌유학을 통한 농촌학교 및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함양 서하초 아이토피아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 김규훈 회원(전주공고 교사) 관악부 지도,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본원 회원인 김규훈 교사(전주공고)가 지도한 전주공고 관악부가 지난 10월 8일 열린 제46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전주공고는 앞서 지난 8월 2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합주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규훈 교사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여름방학에도 학생, 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연습한 결과라며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시총회를 열고 단체활동 활성화 결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9월 2일(금) 저녁 6시에 임시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감사 등을 새로 선출하고, 고문단과 자문위원을 추대하였다. 6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임시총회는 본원 정우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본원 이광철, 송병주 고문과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정우식 이사장과 김명희 부원장이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 녹두꽃 시민합창단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참가

'녹두꽃' 시민합창단원으로서 취미생활과 함께 노래를 통한 사회연대 활동을 해온 본원 정우식 이사장과 정은숙 이사, 이광철 고문, 최경애 회원은 지난 10월 29일(토) 인천에서 열린 제6회 전국국민주시민합창축전에 참가하여 평소 갈고닦아온 실력을 무대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창단 3년째를 맞은 녹두꽃 시민합창단은 우리 지역 시민합창단으로 탄탄히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입 회원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해도 좋을 듯하다.



‘원주학기(袁州學記)’로 읽는 지역교육생태계 복원

문채병(본원 이사)

‘원주학기(袁州學記)’는 송나라 때 학자 이구(李覲)가 쓴 글이다. 원주(袁州)는 강서성(江西省)에 속해 있는 고을로, 인종 때, 각 주현(州縣)에 공립학교를 세우라는 황제의 조칙에 의해 지방 교육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태수(太守) 조무택이 그동안 학교가 너무 궁색했음을 살펴보고, 원주청사 동쪽에 새로이 학교를 세웠는데, 원주의 주학(州學)이다. 학교 완공을 맞이하여 기록한 글이다.

군주정(君主政) 절대명령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때 태수와 현령 중엔 명철한 분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힘을 다하고 공경하여 황제의 뜻을 실천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건물을 빌리고 교사(敎師)를 잠시 고용하여 구차히 형식적 문서를 갖추기에 급급하였다. (중략) 이러다 보니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진시황은 만세토록 제왕이 되려 했으나, 유방(劉邦)이 한 번 호령으로 항복하였으니, 어째서인가? 분서경유로 교육과 문화가 훼손(毀折), 도가 사라져 사람들은 오직 이익만을 볼 뿐, 의(義)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한나라 효무제, 후한의 광무제 두 분은 풍속과 교화에 힘쓴 결과 문화유산이 먼 후대까지 두텁게 이어지게 되었다. 바로 교화의 도가 사람의 마음을 맺어놓았기에 그러하였던 것이고 국가가 교육을 장려하는 뜻도 여기에 있다.”

“만약 붓과 먹을 가지고 장난치며, 이익과 영달을 추구할 뿐이라면, 어찌 다만 몇 사람만의 부끄러움이겠는가?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걱정일 것이다.”라며 경구(警句)로 글을 마친다.

지난 세월 전북교육을 살리겠다는 목소리는 컸다. 실제로는 정파적 진영주도권과 확장에만 매몰 되더니 급기야 지역교육생태계는 뿌리 째 고사 지경이다. 붓과 먹을 가지고 장난친 해악이다. 그러고도 중앙정치만 타다면 그만인가? 전북교육계는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송나라 태수 조무택이 직접 지방 교육에 팔을 걷어붙이고 주학(州學)을 살렸듯 새로운 메시아가 간절하다.

11월 행사 안내

전북 고대사 답사동아리
《고대로 가야 해》

11월 답사 안내
삼국사기 최대 격전지
남원 아막성

11월 19일(토) 오전 9시
전주 화산체육관 출발

신입 회원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의 : 063/905-0218,
010-8626-4935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